

보도시점 2023. 4. 28.(금) 12:00 배포 2023. 4. 28.(금) 08:3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 안전영역별 지표의 통계 데이터로 우리사회 안전현황을 포괄적 제시
- 기후위기, 사이버범죄, 전염병 확산 등 최근 안전이슈 관련 지표 다수 포함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11~'21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취약 요인)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하였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하였다.

(대응 역량)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피해 보호 대상이확대되었다.

(피해(영향))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하였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하였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 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2년 12월 말까지 공표된 통계로 작성되어, 지표별로 활용자료의 시점이 서로 상이함에 유의. (실업률, 산재사망률 등 일부 지표는 지표 시의성을 고려하여 '23년 공표자료를 수록함)

[붙임]

- 1.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 2. (참고1)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 3. (참고2) 안전지표 개요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과 장	전준우 (042-366-7130)
	정책통계연구팀	담당자	사무관	민경아 (042-366-7133)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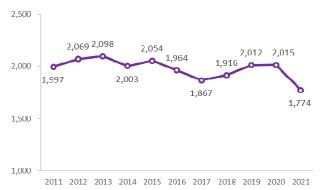
안전영역별 주요 내용

1. 위해·환경 요인

- ◆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11~21)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아
- □ (범죄) '21년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2,015건) 대비12.0% 감소하였으며, 최근 10년('11~'21) 중 가장 낮은 수준
 - 주요 형법범죄별로는 **살인·강도·폭행·절도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는 소폭 증가

<범죄발생률(건/10만명), 2011~2021>

<주요 범죄 발생률(건/10만명),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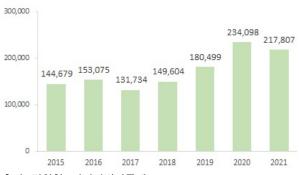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살 인	1.7	1.6	1.6	1.6	1.3
강 도	1.9	1.6	1.6	1.3	1.0
성폭력(강간)	63.9	62.2	61.9	58.1	63.6
폭 행	322.2	318.8	313.1	277.1	231.0
절 도	358.9	343.9	362.9	347.4	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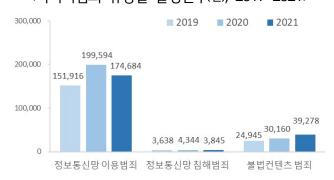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기준)

주1: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로, 특별법범죄 등은 제외함

주2: 2002년부터 강간에 성폭력이 포함되며, 2014년부터는 성폭력으로 분류명이 변경됨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1년 218천건으로 '20년대비 16천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불법컨텐츠 범죄는 증가추세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건), 2015~2021>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건수(건), 2019~2021>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주: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사이버사기, 저작권침해, 위치정보침해 등이,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악성프로그램, 해킹, DDos 등이, 불법컨텐츠 범죄는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해당됨

- ◈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년 이후 하락 추세이나, 오존 농도는 상승 추세
- ◈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20년 증가폭 두드러져
- □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는 '20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오존농도는 상승 추세
 - '22년 미세먼지 농도(PM2.5)는 17.9µg/m³로 '20년 하락폭이 두드러짐
 - 반면, '21년 대기 중 오존 농도는 0.032ppm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
 -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21년 67일로 '20년(46일)보다 21일 증가

<미세먼지(PM2.5) 농도(µg/m³), 2015~2022>

<오존 농도(ppm) 및 주의보 발령일수, 2015~2021>



출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1: 미세먼지 농도는 17개 시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인구 가중한 평균값

주2: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인 경우 발령

- □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 첫해('20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
 - '21년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량은 1.18kg로, 전년(1.16kg)대비 0.02kg 증가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톤/일) 및 1인1일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kg/일),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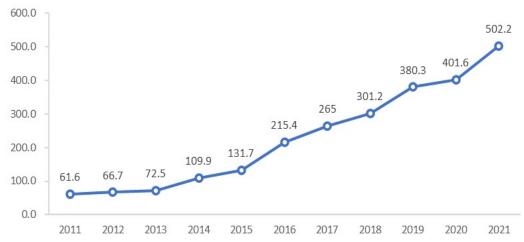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생활계 폐기물 = 생활 폐기물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2. 취약요인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 증가

- □ (아동학대) '21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대비 증가
 - o '13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21년 크게 증가
 -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하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 증가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건/10만명), 2011~2021>



출처: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아동학대 사례 최종 판단 건수 ÷ 18세 미만 추계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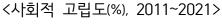
□ (사회적 유대) '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19년(27.7%)보다 증가

ㅇ 남자(36.6%)가 여자(31.6%)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도도 증가

6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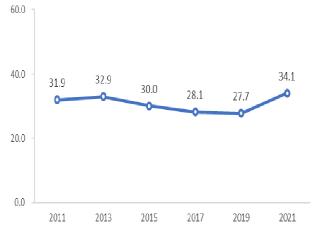
36.6



<성별·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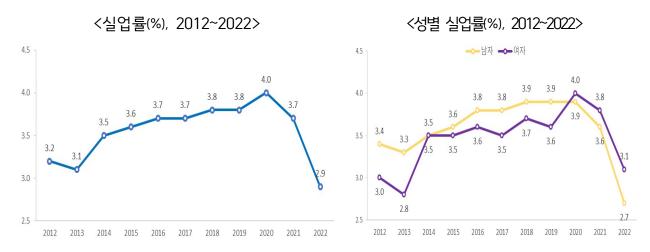
41.6

37.1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주: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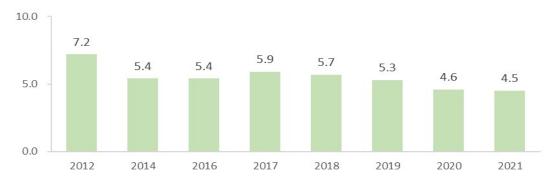
- ◆ 실업률은 지난 1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7년이후 꾸준한 감소세
- □ (실업) '22년 실업률은 '21년(3.7%)보다 0.8%p 감소하여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
 - 실업률은 '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년(4.0%)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
 - 성별로 보면, 그간 남자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20년부터 여자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주거여건)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1년 4.5%로 전년대비 0.1%p 감소
 - ㅇ '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가 '20년 4.6%로 4%대 진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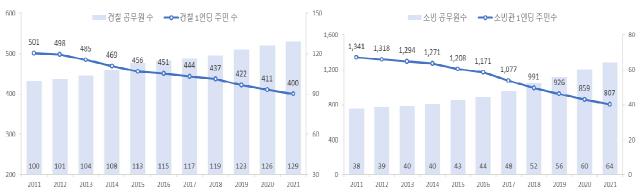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3. 대응 역량

◈ 경찰·소방인력 및 병상의 지속 확보로 공공안전 대응 역량 향상

- □ (공공안전인력) 경찰·소방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으로 1인당 주민 수 감소 추세
 - ㅇ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20년 411명에서 '21년 400명으로 감소
 - 경찰 공무원 수는 '21년 129천명으로 '20년(126천명)대비 3천명 증가
 - ㅇ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는 '20년 859명에서 '21년 807명으로 감소
 - 소방 공무원 수는 '21년 64천명으로 '20년(60천명)대비 4천명 증가

〈경찰 공무원 수천명) 및 1인당 주민수명, 2011~2021〉 〈소방공무원 수천명) 및 1인당 주민수명,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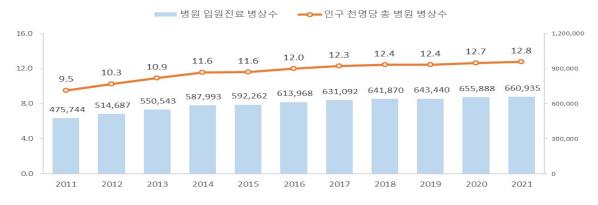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출처: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병상) '21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8개로 지속 증가 추세

o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는 '21년 661천개로 '20년(656천개)대비 5천개 증가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개) 및 총 병원 병상 수(개/천명), 2011~2021>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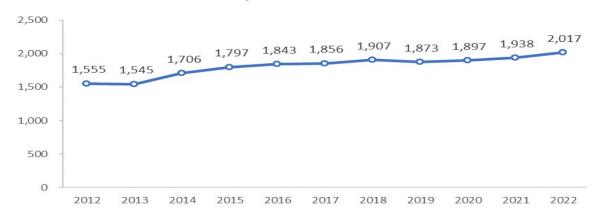
주: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대상으로 함

◈ 산재보험 및 풍수해 보험가입 규모 증가로 피해 보호 대상 확대

□ (산재)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22년 2,017만 명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섬

- 이 산재보험 가입 직종의 단계적 확대로 보호 대상 근로자 증가 추세
 - * '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1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단계적 적용 중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자 및 배우자 등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산재 사각지대 해소 추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만명),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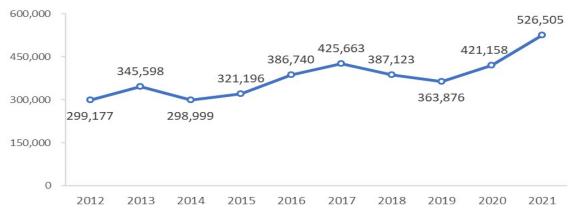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각 년도 말 산재보험 가입자 수

□ (풍수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1년 526,505건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

- ㅇ 특히, '20년 자연재난 피해가 매우 커, 예년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
 - * '20년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평가받는 '볼라벤'의 영향으로, 호우(1조 952억원), 태풍(2,225억 원) 등의 총 1조 3,182억원의 피해액 발생하여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됨

<풍수해 보험 가입건 수(건), 2012~2021>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4. 피해(영향)

- ◈ 자연재난 피해는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크게 증가
- □ (자연재난) '21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는 전년대비 모두 감소
 - '21년 사망(실종)자는 42명으로 전년(75명)대비 33명 감소
 - 원인별로는 호우 및 태풍은 감소한 반면, 폭염은 증가
 - '21년 피해액은 661억 원으로 전년(1조 3,182억 원)대비 크게 감소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명) 및 피해액(억 원), 2011~2021>

〈워인별 사망(실종)자(명), 2011~2021>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 2015년은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미발생, 2018년부터 폭염에 의한 사망자 포함

- □ (사회재난) '21년 사회재난 발생건수(23건)는 전년대비 2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 크게 증가
 - '21년 사회재난 사망(실종)자는 5,087명으로, 전년(1,008명)보다 5배 증가
 -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5,054명 발생하여 인명피해 대폭 증가
 - '21년 피해액은 6,767억 원으로, 전년(3,343억 원)보다 2배 증가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5,178억원), 기축질병(1,291억원), 산불(177억원) 순으로 발생

6.000

<시회재난 사망(실종)자(명) 및 피해액(억 원), 2011~2021>

<워인별 피해액(억 원), 2020·2021>

5,178

2020 202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건)	3	2	7	16	7	12	16	20	28	25	23
사망(실종)자 (명)	3	5	12	411	67	19	65	93	63	1,008	5,087
피해액 (억 원)	12	3,014	1,274	531	945	626	1,092	1,228	5,303	3,343	6,767

5,000 - 4,000 - 3,000 - 1,380 - 1,1521,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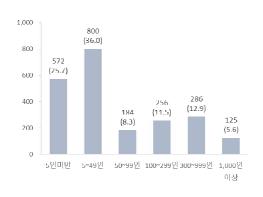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사회재난)

◈ 산업재해 사망률은 전년대비 증가, 운수사고 사망률은 감소

- □ (산재) 산재사망률은 전년대비 증가, 산재사망자 수는 '19년이후 지속 증가
 - o '22년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당 1.10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
 - '22년 산재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9년 2,020명 이후 지속 증가
 - 산재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산재사망자 수(명) 및 산재사망률(명/근로자만명), 2012~2022> <시업장 규모별 사망자(명, %), 2022>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주1: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 (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주2: 산재사망률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 100,000

□ (운수사고) 운수사고 사망률은 '12년이후 지속 감소 추세

- o '21년 **운수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1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
- o '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전년대비 323명 감소
 - 운송수단별로는 보행자(1,241명), 오토바이(677명), 승용차(567명), 화물차(311명), 자전거(191명) 순으로 발생

<윤수시고 사망자(명) 및 사망률(명/10만명), 2011~2021>

<주요 운송수단별 사망자(명),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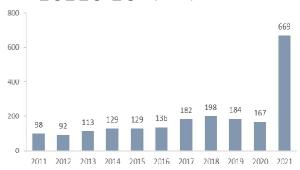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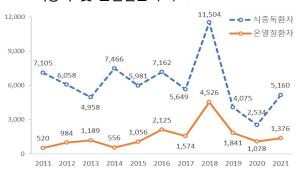
- ◈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 및 온열질환자가 증가하여 보건안전에 크게 위협
- ◈ 자살률은 '17년 이후 증가 추세
- □ (건강) '21년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식중독·온열질 환자도 전년대비 증가
 - ㅇ 법정감염병 발생건수는 '21년 669천건으로 전년(167천건)대비 약 4배 증가
 - '21년 코로나19 환자(570천명)가 전년(61천명)대비 9배 이상 증가
 - 식중독 환자는 '21년 5,160명으로 전년(2,534명)대비 2배 발생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1년 1,376명으로 전년대비 약 1.3배 증가

<법정감염병 발생건수(천건), 2011~2021>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감시연보

<식중독 및 온열질환자 수(명), 2011~202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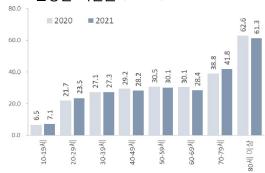
- □ (자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1년 26.0명으로, '17년 이후 증가
 - 남자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1년 남자는 35.9명,여자는 16.2명으로 남녀 모두 '20년보다 증가
 - '17년 이후 여자 자살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ㅇ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으나, 최근 10~20대 자살률 증가

<자살륰(명/10만명), 2011~2021>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별 지살률(명/10만명),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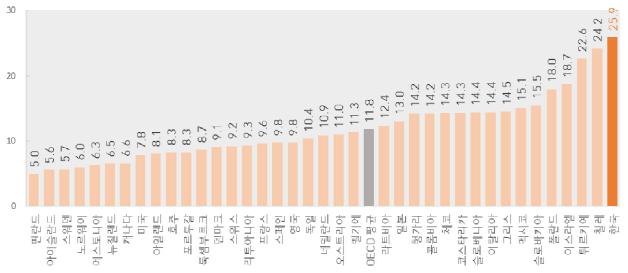
참고1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 (미세먼지 농도) '20년 미세먼지(PM2.5) 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OECD 국가별 미세먼지(PM2.5) 농도,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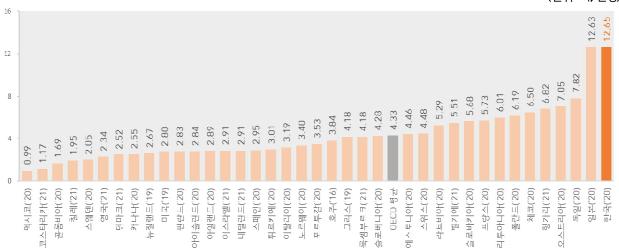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위성관측 자료와 화학수송모형(chemical transport model)을 이용한 추정치임

□ (총 병원 병상수) '20년 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만명당 12.65개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

<OECD 국가별 총 병원 병상 수, 2020>

(단위: 개/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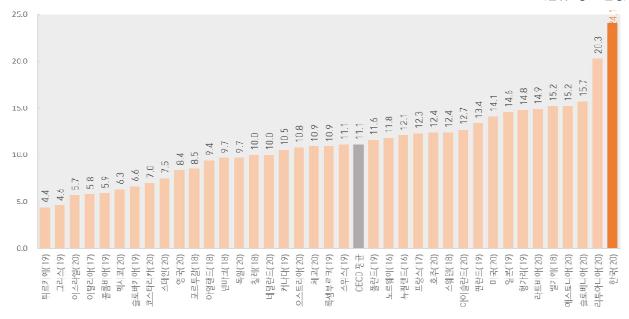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칠레,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잠정치임

□ (자살률) '2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OECD 국가별 자살률, 2020>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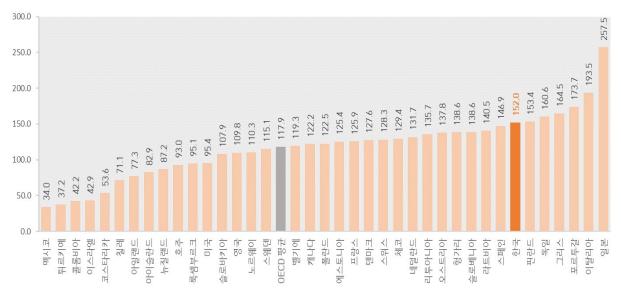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 (노령화지수) '22년 노령화지수는 152.0으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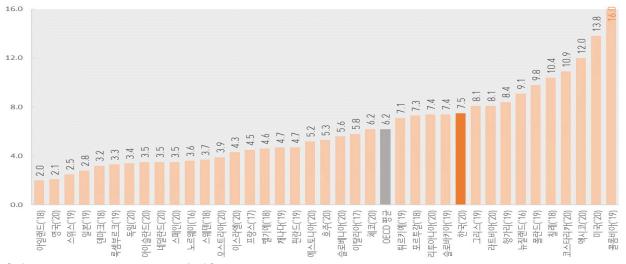
<OECD 국가별 노령화지수, 2020>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주: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으며, 칠레,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잠정치임 □ (**운수사고 사망률**) 운수사고 사망률은 '20년 인구 10만명당 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

<OECD 국가별 운수사고 사망률, 2020>

(단위: 명/10만명)



출처: OECD, 「OECD Stat.」 2022.12월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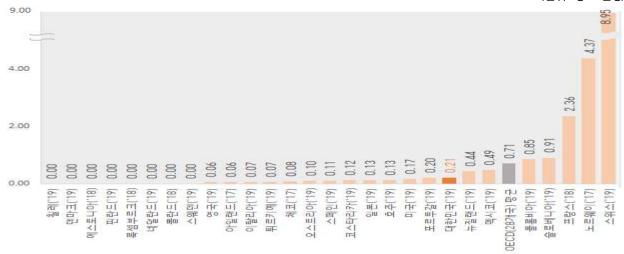
주1: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산술평균임

주2: 데이터 연도는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음

□ (재난사고 사망률) 재난사고 사망률은 '19년 인구 10만명당 0.21명으로○ECD 2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

<OECD 국가별 재난사고 사망률, 2019>

(단위: 명/10만명)



출처: UNISDR, SDGs Indicator 11.5.1. 2022.12월 인출

주1: SDGs Indicator 11.5.1.은 인구 10만명당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실종자를 포함함

주2: 2020년 이후 일부 국가의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으나, 코로나19 사망자 포함 여부가 상이하여 달라 국가간 자료의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함.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을 기준년도로 수록함

참고2

안전지표 개요

□ 안전 개념

○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

□ 안전 프레임워크 구성 및 정의

<안전 프레임워크 및 영역별 정의>

		<u> </u>
위해요인 환경요인 (HAZARD) (EXPOSURE)	위해·환경 요인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현상 또는 인간 활동 및 위험한 장소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현황
위험 (RISK) 피해(영향) (MPACT)	취약 요인	동일한 위해요인과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는 성질
취약요인 (VUNERABILITY)	대응 역량	재난 위험을 관리하거나 감소시키고, 재난 발생 이후 신속한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모든 능력, 속성 및 자원의 조합
대응역량 (COPING CAPACITY)	피해(영향)	위험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

^{*} 위해요인과 환경요인은 지표의 조작적 개념과 범위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표관리를 위해 두 영역을 병합함

□ 안전지표: 4대 영역, 총 60개 지표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요인
1.1 범죄 발생률	2.1 등 록 장애인 수	3.1 경찰 1인당 주민수	4.1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2 노령화지수	3.2 소방관 1인당 주민수	4.2 운수사고 사망률
1.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2.3 독거노인 비율	3.3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	4.3 낙상 사망률
1.4 성폭력 발생건수	2.4 국내 체류 외국인 수	3.4 총 병원 병상수	4.4 익수사고 사망률
1.5 화재 건수	2.5 지니계수	3.5 안전띠 착 용률	4.5 가해에 의한 사망 률
1.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6 실업 률	3.6 이륜차 안전모 착 용률	4.6 중독 사망률
1.7 온실가스 배출량	2.7 범죄피해율	3.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4.7 화재 사망률
1.8 위험기상일수	2.8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3.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4.8 자살 률
1.9 미세먼지(PM 2.5) 농도	2.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4.9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1.10 대기 중 오존 오염도	2.10 우 울 감 경험률	3.1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10 낙상 입원율
1.11 1인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11 사회적 고립도		4.11 운수 사고 입원율
1.12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2.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2 자연재난 인명피해
1.13 야간보행 안전도	2.13 음주운전 경험률		4.13 자연재난 피해액
1.14 사회안전 인식도	2.14 월간 음주율		4.14 사회재난 인명피해
	2.15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4.15 사회재난 피해액
			4.16 산업재해 사망률
			4.17 산업재해율
			4.18 보이스피싱 피해액
			4.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4.20 식중독 발생건수
			4.21 온열질환자 수